

북미 최대 한인마트에 '온라인 전남 식품관' 개설

김 지사, 뉴저지 H-마트서 기념식
지자체 최초 입점... 연중 운영기로
냉동김밥 등 출시... 내년 1월 판매
한복의 날 행사서 한국문화 홍보

전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복미 최대 한
인마트인 H-마트 온라인몰에 전남 식품
관을 개설해 연중 운영에 나선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열린 H-마트 온라인물 전남식품관 개설 기념행사 및 전남 농수산식품 판촉전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일연 H-마트 대표와 우고 히메네스 리지필드시장, 류용기 리지필드시의원, 윤미정 한국농수산물품유통공사(aT) 뉴욕 지사장 등이 참여했다.

H-마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에 124개에 달하는 매장을 보유한 북미 최대 인터내셔널 슈퍼마켓이다.

이번 온라인몰 전담식품관 개설은 H-마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마케팅 전략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북미시장에서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념행사에서는 전남 김과 쌀을 이용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전남도-재미 차세대 협의회(AAYC) 공동으로 주최한 '2024 미국 뉴저지주 한복의 날에서 전남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냉동김밥 3종이 첫 선을 보였다. 전남도는 한식을 좋아하는 소비자와 간편식을 선호하는 현지인들의 냉동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시식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H-마트 온라인몰과 한남체인 등에서 본격 판매한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지역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14일간 북미 H-마트

62개 매장에서 20개사 62개 농수산물식품
오프라인 판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남도문학이 국내외에서 조명받을 것이며, 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푸드(K-FOOD)의 본고장인 전남의 농산식품이 해외 한인마켓을 넘어 현지인에게도 더욱 인정받게 됐다”며 “해외시장에서 전남의 농산식품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운영과 H-마트를 포함한 미 현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위한 수출기업 판촉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미들스쿨에서 전남도와 재미차세대협의회(AAYC)가 공동 주최한 ‘2024 뉴저지주 한복의 날 행사’에도 참석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

다.

행사에는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앤서니 큐레토 버겐카운티 경찰국장,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 등 뉴저지주 주요 인사와 현지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복패션쇼, 전통공연, 한복입기 체험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김밥, 장성쌀 등 전남 농수산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한복문화장작소에서 진행한 한복 패션쇼에선 전통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 해석된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을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부스에선 많은 이들이 한복의 우아함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만큼 현지 다문화 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해 미국 내 한인 청년이 한국의 전통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예로부터 사·서·화·창과 고려청자 등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운 ‘예향’”이라며 “앞으로도 케이(K)-컬처의 선도자로서 전 세계에 한복과 케이푸드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본격화

서구 1·남구 1·광산 4곳 제출
타당성조사 등 거쳐 최종 확정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자치구로부터 총 6곳이 제출됐다. 자치구별로는 서구1, 남구1, 광산구 4곳으로 총 6곳이다.

시는 이번에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구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으로 응모요건과 입지여건에 대한 2차 검증
을 할 예정이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
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주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시설 알리기에 주력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제작한 짧은 영상(쇼트폼) 3편을 올려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안내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

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5%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 광주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찬성률 36.6%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한
다는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노병하 기자

광주시,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 가동

협력업체·신산업전환 2개반 운영
삼성전자 물량 재배치 적극 대처

광주시가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구성,가동한다.

광주지역 대표 가전업체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재배치와 관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7일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시민대 화방에서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발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협력업체지원반과 신산업전환지

원반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에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외 이전에 따른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광주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삼성전자·광주시업장 협력업체 60여개사를 대상으로 물량 재배치가 시장에 미치는 상황 분석, 협력업체 영향 및 대응 상황, 광주시 및 기업원기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상생 강화를 위한 삼성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협력업체 지원 펀드 활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DK[®]
다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